

# 전북도 6차산업화 선도

### 17개소 경영체 지정... 누적 인증사업자 198개소로 전국 최다

전북도는 도내 17개소경영체가 2017년도 2/4분기 6차산업(융복합사업)인증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6차산업 누적 인증사업자가 198개소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6차 산업 인증 심사는 6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체의 인증신청을 받아 도 6차 산업 지원센터 전문 컨설팅을 거쳐 농림부에신청하면 농식품부 주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6차 산업 적합성 및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 지역농업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정 경영체를 지정하게 된다.

전북도에서는 2/4분기에 19개 경영체를 선발 신청하여 17개경영체(89%)가 지정받아 전국 77개 경영체의 22%를 점유한다고 밝혔다.

인증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명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사업체는 6차산업 인증표시를 부착, 우수제품 유통플랫폼 개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등에 참가할 수 있고 6차산업 온라인 사이트(<http://www.6차산업.com>)에 인증정보를 등록해 온 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게 된다.

또한,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 품질관리 현장 코칭, 자금 지원, 새로운 유통 채널 구축, 등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전북도 관계자는 "6차 산업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인증 사업자로 지정하여 6차 산업 확산의 주체로 활용하고, 인증사업자 중 경영실적, 사업목표 달성도 등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 포상하여 6차산업화 성과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여성체육인 간담회** 18일 전북체육회관에서 열린 전북도 여성체육인 간담회에 송하진도지사를 비롯하여 시군 여성체육인이 참석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여성체육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중장년 '새로운 후반전' 전폭 지원

22일 취업박람회 개최  
일자리·고용안정 도모  
30개 기업 현장서 면접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장년에게 재취업의 희망을 주고자 '2017년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22일(금),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중장년 취업박람회는 '할 수 있다는 희망! 끝나지 않은 열정! 다시 시작하는 꿈!'이라는 슬로건으로 베이비부머 등 가장세대의 퇴직증가에 따른 재취업 지원과 연령제한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우리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된다.

중장년 구인기업 채용관을 중심으로 취업컨설팅관, 취업지원관, 부대

관 등 54개의 부스를 설치해 다채롭게 운영될 예정이며, 채용관으로 다산기공, (주)팜조아, (주)한국물드김제 등 총 30개 기업이 현장에서 서류전형 및 1차 실무면접을 거쳐 채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부대관에서는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전주고용센터, 전북중장년일자리회관센터, 전북여성일자리센터, 전북귀농귀촌지원센터, 노인일자리센터 등 일자리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중장년층 구직자들을 위한 1:1 맞춤형 취업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부대행사로는 중장년층이 관심이 많은 '귀농귀촌 및 건강관리 컨설팅'과 성공취업을 위해 필요한 '이력서 사생활영관, 적성검사' 등이 함께 운영되며, '새 출발, 새로운 후반전을 위한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주제로 하프타임코리아 박호근 대표의 취업 특강이 마련되어 있다. 현장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하고 행사장에 오면, 바로 서류전형에서부터 면접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2017 전북 중장년 취업박람회'는 전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www.1577-0365.or.kr](http://www.1577-0365.or.kr))를 통해서 현장채용 참여기업현황, 박람회 참여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 또한 지역특화 일자리, 취약일자리, 미래일자리, 공공일자리로 대변되는 4대 전략과 17개 과제를 중심으로 중장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앞으로 은퇴를 맞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해 새로운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취업지원 시책 등을 발굴 확대 시행해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족쇄

### 도·경찰청·도로공사, 내일까지 합동단속 실시

전북도는 1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소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도, 경찰청, 도로공사 3개기관이 자동차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120여명의 인원이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 시스템 탑재 차량, 영치 스마트폰 등 첨단장비를

동원, 19일 김제, 부안 등 4개소 고속도로 요금소를 시작으로 20일 10개 요금소에서 실시한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 하고 2회이상 체납차량은 변호관을 영치하며,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차단체간 징수촉탁제도에 의해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어

디서나 변호관을 영치하게 된다.

또한, 삼승체납차량이나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하며 앞으로도 경찰청, 도로공사와 연계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8월말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6.9%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변호관 영치라는 강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합동단속 기간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수시로 강도 높은 변호관 영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풍성한 한가위 '안전 전북' 구현

###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안전복지서비스 전개

전북도는 도민의 안전한 추석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가스판매업협동조합, 한국열관리사공협회, 린나이코리아(주) 등 6개 기관과 함께 '재난안전 점검수리반'을 구성, 도내 구석구석 찾아가는 안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찾아가는 안전 서비스' 사업은 전북도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1997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20여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관합동 안전복지사업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이

나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의 재난취약기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생활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여 무료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도는 올해도 지난 5월, 4개 시군 200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서비스'를 제공했다. '재난안전 점검수리반'이 생활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시정개선을 추진함은 물론 재난예방홍보활동을 실시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안전복지강화 차원에서 사업을 확대 운영키로 하고, 재난취약 정도와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해 전주시 색장동 은석마을, 군산시 회현면 월하산마을, 임실군 운안면 선거마을, 부안군 하서면 반암마을 등 4개 마을 200세대를 추가로 선정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등 토털 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안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며, 전북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안전전북 구현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확대 실시되는 이번 찾아가는 안전서비스를 통해 단 한명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풍성한 한가위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글로벌 해외연수생 전원 귀국 완료

### 캐나다·호주 등 4개국 6주 진행... 347명 무사 귀환

전북도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2017년도 여름학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가 무사히 마쳤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여름학기 해외연수사업이 9월 19일 캐나다 연수생 귀국을 마지막으로 탈 없이 종료됐다.

이번 여름학기 연수생 347명(초등학교 197명, 중학생 150명)은 지난 5월에

선발된 장학생으로 캐나다(134명)를 비롯 호주(80명), 뉴질랜드(78명), 중국(55명) 등 4개국에서 6주간의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 프로그램인 집중 어학연수(4주)와 현지 정규학교 수업과정(2주)에 참여하여 현지 학생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면서 언어학습을 진행했다. 홈스테이 생활을 통해 현지 생활 및

현지 문화 유적지 및 역사 탐방지를 방문하는 등 글로벌 마인드 형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험을 진행했다.

11월 4일 연수를 마친 연수생을 대상으로 성과보고회를 개최 할 예정이며, 내년 1월에도 초중학생 384명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에서 겨울학기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서는 "앞으로 도외국의 문화와 역사 체험, 현지 학생들과의 인적교류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http://www.ijmaeil.com)